

아빠의 건강도 차곡차곡

서울 신서초등학교 5학년 1반 장 유 진

“유진아, 슈퍼에 좀 다녀오렴.”

오늘도 아빠의 목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난 눈감고도 달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다닌 길이어서 순식간에 달려갔다.

“팔팔 담배 1갑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가게이다. 처음에는 담배를 왜 피우는지, 어디에서 사는지조차 몰랐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아빠가 잘 피우시는 담배는 얼마인지 다 외워졌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담배를 끊으라고 엄마와 난 말하지만 아빠께서 고집불통이시다. 아빠의 담배로 우리 집은 언제나 목까지 콧콧 막히는 연기가 뚝뚝 퍼있었고, 매일매일 우리 가족은 기침을 한다. 내 동생은 어려서 담배를 가지고 놀기도 하였다. 자꾸 담배를 사다보니 내 용돈까지도 담배 사는 곳에 쓰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아빠랑 대화할 땐 항상 담배의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아빠, 아빠는 담배를 왜 피?”

“응, 아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우는 거야.”

정말 그럴까? 스트레스 때문에 피우는 걸까?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적이 있다. 스트레스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확률이 많다고... 담배는 맛있을까? 아빠께서는 씹쓸한 맛이라고 하시지만 꼭 피우셔야 될까? 사탕도 아닌데...

아빠도 나의 끈질긴 설득력에 끊으시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지만 완전히 끊으시지는 못하셨다. 집에서 못 피우게 하면 끊겠지 하고 밖으로 나가 피우라고 하였지만 이미 아빠의 마음에는 담배의 연기가 덮친지 오래 전이다.

마약을 먹으면 날뛰는 마약 중독자처럼 아빠는 서서히 담배의 껌에 넘어가고 있었다. 난 하루종일 아니, 매일 매일 고민하였다.

‘어떻게 하면 아빠께서 담배를 끊으실까?’

별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마지막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

“아빠, 담배 많이 피우면 빨리 죽는데, 아빠 일찍 죽으면 어떻게.”

난 드디어 마지막 방법을 쓰고 말았다. 이 방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아빠는 아직도 담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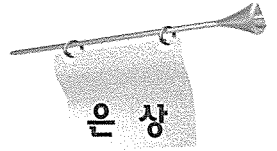
어느날, 난 동생과 엄마랑 외출을 하고 왔다. 저녁을 드시고 항상 담배를 피우시던 아빠께서 안 피우시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진짜 담배를 끊으신 걸까? 얼른 휴지통을 보았다. 그 순간, 난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한참 뒤, 난 함성을 질렀다. 휴지통에는 꾸깃꾸깃한 담배가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담배와 아빠를 이별시키기까지 9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

담배를 끊으신 뒤, 아빠의 얼굴 색은 다시 살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전의 그 착취도 없어졌다.

전에는 항상 아빠에게 갈비씨 아빠라고 놀려댔지만 지금은 통통 돼지 아빠라고 불릴 만큼 튼튼하신 아빠가 되셨다. 담배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니...

아주 생생한 담배의 체험이었다. 담배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만약 우리 아빠가 이번에 담배를 끊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담배꽂초, 아빠가 끊으신 덕분에 그 돈으로 저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달에 나가던 4,000~5,000원이 저금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우리 나라 금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하루 빨리 해결방법을 만들어서 아빠의 건강도 차곡 차곡, 돼지 저금통장에도 차곡 차곡...



46번째 선물

경남 함양군 함양초등학교 6학년 박이슬

4월은 우리 아버지의 달이다.

4월 8일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18일은 아버지의 생신, 그리고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심코 지나쳐 버렸다.

15주년 기념일도, 생일도, 장애인의 날에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린 날들이지만 아버지께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

46번째 맞는 봄이지만 요즘 들어 무척이나 피곤해 보이고 야위어 보여서 건강을 드리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선물이라 고민이다.

몇 년 전에 아버지에게 담배를 언제부터 피우게 되었는지 여쭙어 본 일이 있다. 아버지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이 들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서 피우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뒤, 몇 번이고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다.

아버지도 담배가 몸에 안 좋은 줄 알지만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고, 결정할 일이 생기면 담배가 꼭 필요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와 금연하기로 약속한 일도 있지만 실천해 보지는 못했다. 금연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

매일 밤 11시면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 온다.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대문까지 안 오셔도 '아! 아

버지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이슬아! 한나야! 아빠왔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로 아버지께서 오심을 알았으니까.

요즘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다. 나도 헛기침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시다 보니까 폐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건강했으면 한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가장이시고 기둥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장애인이다. 오른쪽 팔이 불편하셔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가 혹시나 일찍 우리 곁을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데, 담배까지 많이 피워 건강을 해쳐서 우리 세 자매가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곁을 떠난다면 우리 가족은 불행할 것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의 굳은 다짐을 다시 한 번 소망하며,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